

학생·학부모 진학 불안 줄인다…학년별·지역별 맞춤 지원

전남광주시교육청, 학생부 거래 제한 맞춰 공교육 진학상담 강화

전남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불안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입시 상담·컨설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사교육 업체의 과도한 홍보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정보 부족과 진학 준비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전국 진학전문가와 함께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광주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를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박람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서

부권), 순천북성고등학교(동부권), 김대중컨벤션센터(중부권)에서 동시에 열린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지원 전략과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 진학전문가와 전남·광주 교사가 공동으로 상담에 참여해 진학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면·온라인·전화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설계,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대학·학과별 지원전략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16개 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도 운영하며, 군·도서 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에 기반한 '꿈대로 이동상담 및 모의 면접'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센터별 기초강의와 상시 개별상담을 연계해 학생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맞는 학교생

활 및 탐구활동 설계를 돕는다.

광주지역은 온라인 상담 채널인 '빛고를 진학 꿈트리 밴드'를 상시 운영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지원관 2명이 연중 전화상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학년별 맞춤형 상담도 이어진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7월 대입박람회 현장 상담에 이어, 8월 수시 집중상담, 12월 정시 집중상담이 각각 예정돼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월과 7월 학년별 집중 상담을 진행해 시기별 진학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4·5·6·9·10·12월 총 6차례 토요 1대1 상담과 5월 온라인 실시간 화상상담을 제공해 학년과 시기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이 학생과 학부모의 또 다른 불안이나 정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이 학교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진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광주통합특설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한국어 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 제공>

한국어로 잇는 교육협력…우즈베키 교원 연수

전남광주시교육청, 3년째 교류 캄보디아·미국 LA 등으로 확대

전남광주시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실험형 연수를 운영하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과 국제 교육협력 확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부하라·사마르칸트 지역 한국어 교원 30명이 참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째 이어지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는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다뤘다.

한국 문화를 활용한 교수법을 시작으로 문법 지도, 그림책 연계 수업, '모두의 한국어' 교재 활용 방안 등 실습 중심의 강사가 펼쳐졌다.

특히 전남 지역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놀이터' 교재를 전달하고, 놀이형 수업 운영 기법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미국 LA, 파라과이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연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현지 한국어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며 "해외 교육원과 손잡고 협력 범위를 지속 넓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원대, 용산철도고 학생 학점 선이수제 운영

3년 연속 대학수준 전공·실무교육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최근 용산철도고등학교 2·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학점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AP)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최수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용산철도고 교직원, 최근 철도학과를 신설한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AP 교육과정 참가 학생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2024년 체결한 '철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추진됐으며, 철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전공교육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점 선이수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 전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향후 대학 진학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진로 탐색과 전공역량 강화는 물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제도이다. 특히 높은 전문성과 현장 실무

능력이 요구되는 철도 분야에서는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송원대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학과장 권태삼)가 주관했으며, 학생들은 대학이 보유한 철도 전문 교육훈련시설과 실습장비를 활용해 철도차량 운전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받았다.

특히 광주교통공사와 연계한 일일 관제사 체험, 일일 기관사 체험, 차량정비 체험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철도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전국 철도 관련 대학 가운데 송원대학교만이 보유한 8200호대 전기기관차(FTS) 운전실습과 제2종 전기차량(FTS) 운전실습을 통해 실제 기관사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실습교육도 진행했다.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은 "송원대학교는 철도 특성과 대학으로서 축적된 교육 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교와의 연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철도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복합문화공간 '월곡 함께마루'

호남대 앵커사업단, 본격 운영

호남대학교 앵커사업단(단장 정재평)은 최근 광산구 사암로 274에 조성한 월곡동 로컬브랜드 거점 공간 '월곡 함께마루'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장, 김석환 캄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월곡 함께마루'는 월곡동 폐파출소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교류 공간으로 재생한 공간이다. 호남대와 광산구는 민·관·학 협력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간 외관 조성 과정에는 호남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벽화와 공간 환경을 조성했다.

호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학 거버넌스 회의, 학생 프로젝트, 현장학습, 시민 아이디어 발굴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공간 활용 방향을 구체화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거점 조성에 힘써왔다.

앞으로 '월곡 함께마루'는 베이킹과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Bake, 주민과 청년이 함께 지역 콘텐츠를 만드는 Make, 월곡동의 문화와 거리를 활성화하는 Wake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교육 품질·대학 운영 역량 재확인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전 영역 충족…2028년까지 유지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안정적인 대학 운영과 우수한 교육품질 역량을 인정받으며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대표 특성과 대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동강대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 점검에서 모든 평가 영역 '충족' 판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운영 전반을 종합 평가해 교육의 질을 공인하는 제도다.

동강대는 이번 사후점검에서 대학경영 및 성과,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산학 및 지역사회 협력 등 5개 영역 전체

'충족' 판정으로 체계적인 대학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혁신 성과를 입증했다. 평가단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복지 증진과 교직원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 앵커 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취·창업 지원 시스템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기관평가인증'을 유지하며 학교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학생 중심 교육과 지역사회와 상생 등에 더욱 힘쓰며 '대한민국 대표 AI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40도의 땀은 집, 누군가에겐 '무덤'이 됩니다

더위와 외로움, 어르신들은 숨이 막혀갑니다

쪽방에는 상해버린 반찬과 텅 빈 물병뿐,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해주세요.

월 2만원

여름 보양 도시락 선물하기 >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